

# 농진청, 병해충·기상재해 사전 대응

### 궤양 제거·신속 진단 기술 적용... 과수화상병 피해 감소세 유지

농촌진흥청, 병해충·기상재해 사전 대응·농작물 안정적 생산 기반 궤양 제거·신속 진단 기술 적용 과수화상병 피해 감소세 유지



농촌진흥청은 병해충과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농진청은 4~9월에는 사과·배 주산지지역을 중심으로 예방관찰(예찰)을 강화했다. 이 같은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 이후 2022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과수 생육 기인 6~8월까지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아 과수화상병균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나, 전년 발생 수준을 유지했다.

해충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 일반적인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병해충 전문가가 지자체 특화작목연구소, 관련 대학 관계자로 병해충 사전 예방 중앙 예찰단을 조직했다. 중앙 예찰단은 식량작물, 과수, 노지채소 주산지 기상정보(데이터)와 작목별 생육 등을 조사한 후 병해충 발생 우려 지역을 파악하고, 방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과, 배, 복숭아, 배추, 고추, 감귤 단감에 주로 발생하는 중점 관리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신속 방제를 위해 9곳 지역대학과 연구소와 협업체 현장 점검(모니터링)·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점검 및 예찰 결과는 현장에 신속히 제공해 적기 방제를 도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핵심은 농장 단위 상세 기상과 작

물 재해를 예측하는 것이다. 농장 단위(사방 30m 격자) 기상, 작물별 재해 예측 정보 및 피해 최소화 관리 요령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농업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알림톡이나 앱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현재 40종 작물의 생육 단계별 기상재해 예보가 가능하며, 전국 7개 시군 농업인에게 농장 단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155개 시군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0개 작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 년 이상 알림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작물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농가는 85.74%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해충 기상 대응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고, 적용하도록 힘쓰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사전 대응과 빠른 조치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 오전 전주 정원문화센터에서 본부 및 지사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원산책 테라리움 만들기 행사를 추진했다.

## '정원산책 테라리움 만들기'

###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5월 가정의 달 맞이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 오전 전주 정원문화센터에서 본부 및 지사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원산책 테라리움 만들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동반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정원 소개와 산책,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통한 정원치유와 식물과 교감하며 야외정원, 아쿠아틱인 꽃과 나무들을 느낄 수 있는 이월 대식물원을 산책하고, 아이들은

내 손안의 작은 지구 테라리움을 손수 만들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정문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 행사로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5월 가정의 달 맞이 두 번째 행사는 '꽃벌호텔(Bee-Hotel)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24일 기지대 꽃밭소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22일 본사에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사 임직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전북개발공사, 고객만족 향상 위한 CS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22일 공사 사옥에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사 임직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통한 민원인 서비스 응대스킬 UP이라는 주제로 △고객 서비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 △유형별 문제 해결 방법 등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아까시나무 활용 양봉 시범사업 추진

### 새만금 생물다양성 복원·양봉농가 소득증대 일석이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김동인)은 한국양봉협회(전북특별자치도지회)와 함께 새만금 방수제 자생 아까시나무 군락을 활용하여 벌종위기에 처한 꿀벌에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새만금 아까시나무 활용 양봉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인 5월 12일부터 약 2주 동안 벌봉을 설치해 새만금 방수제가 꿀벌 서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1일 사업단과 협회는 양봉 시범사업 현장을 실사하고 추진 실적을 공유하였으며, 시범사업 개선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동인 단장은 "공사 관리 방식에 아까시나무를 활용하여 새만금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는 동시에 양봉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꿀벌 실종이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사업단은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꿀의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농협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한다는 것.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베트남에서 온 50명으로 구성되어, 체류기간이 5개월(E-8)로 성실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업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1주일 전

## 남부안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첫 운영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농협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한다는 것.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베트남에서 온 50명으로 구성되어, 체류기간이 5개월(E-8)로 성실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 농업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1주일 전

에 필요 인원 성별 기간 작업 내용 등을 남부안농협 본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우식 조합장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이 인건비 상승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황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첫 시행인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북농협,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21일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회장, 서군산농협 김기수) 조합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전북협의회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안건을 승인하고 2024년 주유소사업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수 협의회장은 "규제정제가 불안한 가운데 유류 공급안정성 및 유류 가격 변동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어 주유소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협주유소가 안정적인 유류 공급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가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농협주유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기총회에



전북농협은 지난 21일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조합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협주유소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또한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유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여 더

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